

프로농구 6강 사령탑이 꼽은 강점과 키플레이어는?

1위 KCC 전창진 감독,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유재학 감독, 신장 우위 강점...서명진 키플레이어 김승기 감독 "젊은 선수들 뭔가 보여줄길 바라"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각 팀 사령탑이 자신들의 강점과 키플레이어를 꼽으며 각오를 다졌다. 전주 KCC를 정규리그 1위에 올려 놓은 전창진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치는 전창진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모처럼 하게 됐다. 강양택 수석코치와 이정현을 믿으며 플레이오프를 치는 생각'이라며 '하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플레이오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KT 감독 시절인 2010~2011시즌 이후 10년 만에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전창진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모처럼 하게 됐다. 강양택 수석코치와 이정현을 믿으며 플레이오프를 치는 생각"이라며 "하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플레이오프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플레이어를 꼽아달라는 말에도 이정현을 언급한 전창진 감독은 "경

험이 많은 선수고, 어려운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정현이 전체 선수를 통솔하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리그 2위에 오른 울산 현대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신장의 우위를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장재석, 함지훈 등 토종 골밑 자원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골밑에서 득점이 어느 해보다 좋은 해"라고 설명했다.

골밑의 득점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드 서명진을 키플레이어로 뽑은 유재학 감독은 "정규시즌 중에 기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김낙현, 허훈, 이재도 같은 선수들도 신인 때 겪은 어려움"이라며 "서명진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더 일을 것이 없는 시기다. 아무것도 모를 때 두

려움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KT와 맞붙는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은 이재도, 전성현, 문성곤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했다면서 "이 선수들이 뭔가를 보여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기 감독이 선택한 기대하는 선수는 베테랑 포워드 양희종이었다. "부상이 있어서 많이 쉬었는데 복귀했다. (양)희종이가 나가면 수비는 우리 팀 모두가 춤을 출 수 있게 만든다. 허슬플레이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서동철 KT 감독은 강점인 분위기를 앞세워 KGC인삼공사와의 결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지만 성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분위기는 좋았다"면서 "우리 팀이 한 번 터지면 걸잡을 수 없다. 분위기가 나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선수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믿음을 보낸 서동철 감독은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플레이오프의 변수라고 봤다.

서동철 감독은 "브랜든 브라운과 클리프 알렉산더가 자기 역할만 해주면 어떤 경기든 자신있다"면서 "브라운이 장단점이 있는 선수지만 노련하다. 큰 경기에서 중요할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규리그 4위 고양 오리온의 강을준 감독은 오리온을 '도깨비' 팀이라고 지칭하면서 "도깨비가 정신을 차리면 무섭다"며 "플레이오프에서 다 같이 영웅이 돼 팀워크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승현의 부상 공백을 고려해 "모두가 영웅이 돼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던 강을준 감독은 기대하는 선수로 이승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호신(이승현)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승현이 본인 입으로 수호신의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보좌관 역할을 맡고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천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은 "간절함"으로 오리온에 맞선다.

유도훈 감독은 "정영삼, 이대현이 부상으로 좋지 않았는데 6강 플레이



감독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울산 현대모비스 유재학, 안양 KGC 김승기, 고양 오리온 강을준, 전주 KCC 전창진,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부산 KT 서동철 감독.

오프 1차전부터 뛰어보겠다고 준비한다. 선수들의 간절함이 느껴진다"며 "감독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선수들을 믿고 가면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선수들은 모두 다 잘할 것"이

라고 믿음을 보인 유도훈 감독은 조나단 모트리를 기대되는 선수로 선택했다. 그는 "모트리가 단거리에서 공격력을 더 보여줄 것이다. 수비에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7이닝 7피안타(1홈런)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팀이 1-2로 지면서 패전을 기록했다.

“제구 완벽...헛스윙 17번” 패전인데 칭찬받은 류현진

텍사스전 7이닝 2실점에도 패전...“잘 던진 류현진, 토론토 타자들 아무것도 못해”

‘패전 투수’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 호평이 쏟아졌다. 그만큼 잘 던지고도 졌다는 의미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흡린 하나를 포함해 안타 7개를 맞았지만 삼진도 7개를 잡아냈다. 사사구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류현진의 위력적인 투구에 토론토는 1-2로 졌다. 타선이 단 1

점을 뽑아내는데 그치면서 에이스를 돕지 못했다.

류현진은 시즌 첫 패를 당했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이날 경기에 대해 “토론토 타선이 류현진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그만큼 토론토의 패배에도 류현진의 호투가 눈에 띄었던 의미다.

매체는 “류현진은 총분함 이상으로 잘 던졌다. 초반 위기가 있었지만 7이닝을 소화했다. 하지만 토론토 타선은 침묵에 빠졌다.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적시타를 때리지 못했다”고 적었

다. CBS스포츠는 “류현진이 못 던진 게 아니다. 토론토의 공격은 텍사스 선발 카일 갑슨을 상대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류현진은 운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체인지업과 커터, 포심 패스트볼, 커브 등으로 17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거의 항상 그렇듯 제구는 완벽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뉴시스

양현종, 휴스턴과 마이너캠프 연습경기 2이닝 3K 무실점

빅리그 콜업 기다려

빅리그 진입을 노리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마이너리그 대체 캠프에서 첫 실전 등판에 나섰다.

텍사스 산하 트리플A팀 라운드락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양현종은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락 델 다이아몬드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

했다. 2이닝을 책임진 양현종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무찔렀다. 1회에만 삼진 2개를 잡는 등 이날 총 3개의 삼진을 슈아냈다.

이후 마운드를 브렛 마틴에게 넘겨줬다. KBO리그 최고 좌완 투수로 군림하던 양현종은 지난 2월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

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이 다른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캠프에 참가한 그는 시범경기에 5차례 등판, 10이닝 6실점 평균자책점 5.40의 성적을 냈다.

하지만 개막 로스터 합류는 불발됐다.

대체 캠프로 이동한 양현종은 훈련과 실전을 치르면서 빅리그 콜업을 꿈꾸고 있다.

K리그 ‘3월의 선수’ 기성용·김보경·세징야·조현우 경쟁

팬투표 11일 자정까지 가능

기성용(서울), 김보경(전북), 세징야(대구), 조현우(울산)가 2021시즌 3월 ‘이달의 선수’를 두고 경쟁한다.

프로축구연맹은 8일 “3월 이달의 선수 후보로 기성용, 김보경, 세징야, 조현우가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이하 EA코리아)와 2019년부터 선정된 이달의 선수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성용은 6경기에서 3골 1도움, 김보경은 6경기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했다.

개인 통산 이달의 선수상을 총 2회 수상한 세징야는 6경기에서 3골 1도움과 한 차례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유일한 골키퍼 조현우는 6경기에 모두 출전해 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K리그 ‘3월의 선수’ 후보. 왼쪽부터 기성용·김보경·세징야·조현우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달의 선수상은 연맹 경기평가위원회 투표(60%), K리그 팬 투표(25%), EA스포츠의 FIFA 온라인 4유저 투표(15%)를 토대로 정해진다. 선정된 선수는 ▲트로피 수여 ▲유니폼에 이달의 선수상 패치 마킹 ▲

FIFA 온라인 4 플레이어카드에 ‘이달의 선수’ 표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팬 투표는 K리그 이벤트 페이지 회원가입 후 11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1개 아이디로 하루에 한 번씩 투표할 수 있다.

대한항공, 첫 통합우승 도전 vs 우리카드, 첫 정상 정조준

챔프전 1차전 승리팀 우승 확률 ‘73.3%’



프로배구 출범 후 첫 통합 우승을 노리는 대한항공과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노리는 우리카드가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1일 인천 계약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1위에 오른 대한항공은 내친김에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2005년 프로배구 출범 후 첫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가장 안정된 전력을 과시했다.

정지석, 광승석이 이끄는 레프트가 견고하고, 국가대표 세터 한선수의 호흡이 좋다. 오스바니와 임동혁의 파



워 역시 견재하다. 오렐이 이끄는 리시브 라인도 안정돼 있다.

특히, 정지석은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선보였다. 55%가 넘는 공격성공률로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토종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632점)을 기록했다. 서브 부문에서도 러셀(한국전력)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항공은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면서 시즌 후반부터 체력을 충분히 비축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우리카드에 수차례 밀미를 잡혔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 3승 3패를 기록했다.

우리카드는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정규리그 2위에 올라 플레이오프에

서 OK금융그룹을 제압한 우리카드는 창단 후 처음으로 왕좌 정탈전에 올랐다. 우리카드는 대한항공의 아성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마지막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수들이 시즌 내내 준비했으니 보람을 찾아야 한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승부를 한 번 펼쳐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카드는 이번 시즌 유일하게 대한항공과 호각세를 이룬 팀이다.

특히, 외국인 선수 알렉스는 대한항공과의 경기에 강했다. 대한항공전 평균득점이 30점을 넘었다. 알렉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공격을 이끌면서 팀을 챔피언결정전으로 이끌었다.

라이트 나경복과 레프트 한성정 역시 득점력을 뽐내며 마지막 관문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카드의 신에 세터 하승우가 큰 무대에서 얼마나 자신의 토스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우리카드의 사기는 하늘을 찌른다. 플레이오프를 2차전에서 끝내면서 3일간의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중요하다.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73.3%(15차례 중 11회)에 이른다.

뉴시스